

## 시각장애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성향 분석\*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

---

### 《요 약》

---

---

이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의 자기 신체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 형성을 위한 지도·교육의 자료 개발을 위해 전국맹학교 고등부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기개념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고 운동 유무와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요인에서 더 높았으며, 시각장애 정도별로는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의 차이가 없었다. 시각장애 발생시기별로는 후천성이 선천성보다 스포츠 유능감과 유연성 요인에서 더 높았으며, 거주별로는 기숙사생과 자택 거주 학생 간의 차이가 없었고, 운동 유무별로는 운동을 한 학생이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 더 높았다.

둘째, 전체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스포츠 유능감 요인이 가장 높았고, 건강 요인이 가장 낮았다. 또한 운동 유무별 상관관계는 운동을 한 학생 집단에서 근력 요인이 가장 높았고, 건강과 체지방 요인이 가장 낮으며,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 집단에서는 신체 전반 요인이 가장 높았고, 외모 요인이 가장 낮았다.

---

---

주제어 : 시각장애학생, 신체적 자기개념

## 1. 서 론

### 1. 연구의 의의

현대인은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개념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판단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며, 경험과 환경에 대한 해석을 통한 개인의 자기 지각이라 할 수 있다.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긍심도 높으며, 긍정적인 자기 행동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자기개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지장을 초래한다.

자기개념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자기개념이 인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요인이며, 지속적인 신체 운동은 인간의 자기개념 발달과 신체적 자기개념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강성구·박주영, 2003; 김병준, 2001; 김석일, 2004; 양명환, 1998; 유진, 1993; 이윤주 등, 2002; 홍길동·허정식, 2003)고 하였다. 또한 지체부자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구교만, 2002; 김용국, 1997; 박경환, 2004; 최정윤, 2000)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체적 자기개념이 인간에게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뒷받침되면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전선혜, 1998). Dishman과 Gettman(1980)은 신체적 자기개념은 자기신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 건강상태, 신체적 외상, 재능 및 성적 매력 등을 나타내며, 또한 운동은 개인의 신체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신체적 지각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볼 때, 신체적 자기개념은 문화, 연령, 성을 불문하고 총체적 자기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자기개념의 측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 외국에서 전반적인 자기개념으로부터 독립된 개념구조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차원적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이것에는 신체적 자기개념 프로파일(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PSPP; Fox, 1990; Fox & Corbin, 1989),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Physical Self-Concept Scale, PSC; Richards, 1987), 신체적 자기개념 설문지(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PSDQ; Marsh, et al., 1994) 등이 있다.

한편 이 분야의 국내 연구로는 최근 Fox와 Corbin의 신체적 자기지각 프로파일(PSPP)의 한국어 번역본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유진, 소호성, 1998)를 시작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자기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적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외국의 문항을 번역하여 그대로 도입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 비교 문화적 방법을 적용한 질문지의 번역 도입 절차를 적용하여 Marsh 등(1994)이 개발한 PSDQ의 한국판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김병준, 2001)가 개발되었다. Marsh 등이 개발한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는 총 70문항으로 9개의 세부적인 하위 요인과 2개의 일반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한국판으로 개발된 척도는 총 40문항에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자기 존중감,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등의 10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의 개발은 건강 및 체력 상태의 진단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에 있어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정도구는 모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은 신체적인 능력 향상이나 기술 습득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아개념과 자기실현, 친구간의 수용, 사회성 발달, 시지각 운동기능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곽준기 등, 1991). 장애인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은 자기개념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이해와 구별 그리고 성취동기, 자기존중, 자신감, 자기표현, 극기, 협력, 경쟁심 등의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강화하여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시각장애학생 중에는 체력적으로 허약하거나 운동 능력이나 생활 동작에 지체가 있는 학생이 적지 않는데, 이는 시각장애 그 자체가 기초적인 체력이나 운동 혹은 동작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운동량의 부족과 운동 경험의 제한인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체력의 분석적 진단을 통한 운동 참여와 적절한 여가 활동이 요구된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체적 자기개념이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제시되면서 시각장애학생에게도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지체부자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술한 몇몇 연구가 있으나,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 개인이 가진 신체적 자기개념이 총체적인 자아개념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어, 시각장애학생의 신체가치에 대한 평가의 측면에서 각 요인별로 배경 변인에 따른 성향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활동에 수반되는 자기개념을 구명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성향을 분석하여 시각장애학생의 자기 신체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 형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의 배경 변인(성, 시각장애 정도, 시각장애 발생 시기, 거주 형태,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를 밝힌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전체 및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과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12개 맹학교에 재학 중인 중복시각장애학생을 제외한 단순 시각장애 고등부 학생 21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시각장애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별 분포

단위: 명(%)

성별		시각장애 정도		시각장애 발생 시기		거주 형태		운동 유무		계
남	여	맹	저시력	선천성	후천성	기숙사	자택	운동	비운동	
140 (64.5)	77 (35.5)	99 (45.6)	118 (54.4)	124 (57.1)	93 (42.9)	135 (62.2)	82 (37.8)	92 (42.4)	125 (57.6)	217 (100)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구 대상의 분포는 남학생이 140명, 여학생이 77명이었다.

시각장애 정도는 맹과 저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맹학생이 99명, 저시력학생이 118명이었다. 시력에 따른 분류는 국립특수교육원(199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맹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학생을 맹까지를 포함했으며, 저시력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미만인 학생으로서 점자로 학습하더라도 시력을 이용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까지를 포함했다.

시각장애 발생 시기는 선천성과 후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이 124명,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93명이었다. Lowenfeld(1975)는 시각장애인의 실명 시기에 의한 분류는 시각 심상(visual image)의 유무에 따라 선천맹과 후천맹으로 나뉘며 교육적, 심리적 입장에서는 3~5세, 또는 7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3~4세 정도에서의 실명은 시각 표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김동연, 1991),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5세 이전의 시각장애를 선천성, 5세 이후의 시각장애를 후천성으로 간주했다.

거주 형태는 기숙사 거주 학생과 자택 거주 학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 거주자가 135명, 자택 거주자가 82명이었다.

운동 유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의 참여 학생 중에는 운동 학생이 92명, 비운동 학생이 125명이었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Marsh 등(1994)에 의해 개발된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를 우리 문화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판을 제작하여 다양한 통계적 검토를 통해 개발한 김병준(2001)의 한국판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스포츠 유능감(운동에 소질을 갖고 있어 여러 스포츠를 잘 하는 것), 체지방(몸이 뚱뚱하지 않고 지방량이 너무 많지 않은 상태), 외모(남에게 멋있게 보이거나 용모가 준수한 정도), 건강(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병에 걸리더라도 쉽게 회복되는 상태), 신체 활동(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 자기 존중감(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 유연성(여러 방향과 각도로 신체의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능력), 지구력(장거리를 달릴 수 있거나 쉽게 지치지 않고 힘든 일을 하는 능력), 근력(몸에 근육이 많이 있어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힘이 센 정도), 신체 전반(자신의 신체적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등의 10개 하위 요인으로 각 4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평가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9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시각장애학생의 시력정도를 고려하여 맹학생에게는 점자를, 저시력학생에게는 18포인트 확대 목자로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였다. 설문은 연구자에게서 설문조사 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들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 의해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전국맹학교에 배부한 점자·목자 설문지 250부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23부로 회수율 89.2%였다. 그 중에서 자료 처리에 부적절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17부였다.

##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PC용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Windows(Version 10.0 한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 및 운동 유무에 따라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 간과 운동 유무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시각장애 고등부 학생의 배경 변인, 즉 시각장애학생의 성별, 시각장애 정도, 시각장애 발생 시기, 거주 형태, 운동 유무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성향 그리고 전체 및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시각장애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분석

##### 1) 성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분석

시각장애학생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즉 시각장애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성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성 별	N	M	SD	F	P
스포츠 유능감	남학생	140	2.764	.895	23.632	.000***
	여학생	77	2.172	.787		
	합 계	217	2.554	.902		
체지방	남학생	140	3.442	1.192	5.732	.018*
	여학생	77	3.045	1.126		
	합 계	217	3.301	1.182		
외모	남학생	140	2.883	.953	3.948	.048*
	여학생	77	2.594	1.152		
	합 계	217	2.781	1.034		
건강	남학생	140	3.742	.857	29.379	.000***
	여학생	77	3.039	1.013		
	합 계	217	3.493	.973		
신체 활동	남학생	140	2.539	.963	12.405	.001**
	여학생	77	2.026	1.134		
	합 계	217	2.357	1.054		
자기 존중감	남학생	140	3.678	.941	.253	.615
	여학생	77	3.610	.980		
	합 계	217	3.654	.953		

<표 III.1>에서 계속

하위 요인	성 별	N	M	SD	F	P
유연성	남학생	140	2.932	.881	5.176	.024*
	여학생	77	2.652	.836		
	합 계	217	2.832	.874		
지구력	남학생	140	2.391	.897	18.544	.000***
	여학생	77	1.859	.845		
	합 계	217	2.200	.914		
근력	남학생	140	2.814	.901	1.869	.173
	여학생	77	2.629	1.034		
	합 계	217	2.748	.952		
신체 전반	남학생	140	2.748	.905	3.078	.081
	여학생	77	2.516	.977		
	합 계	217	2.665	.936		

\* P<.05 \*\* P<.01 \*\*\* <.001

위 표에서와 같이, 시각장애학생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전체 평균을 보면, 자기 존중감 요인(3.654)이 가장 높고 지구력 요인(2.2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건강 요인(3.742)에서, 여학생이 자기 존중감 요인(3.6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여학생 모두 지구력 요인(2.391, 1.859)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분석해 보면, 남학생이 모든 하위 요인에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체지방, 외모, 유연성 요인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신체 활동 요인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스포츠 유능감, 건강, 지구력 요인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높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 3개 하위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유능감, 건강, 지구력 요인에서 남녀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기 존중감,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는 여학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분석

시각장애학생의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즉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해 하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는 표 III.2와 같다.

&lt;표 III.2&gt; 시각장애 정도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시각장애 정도	N	M	SD	F	P
스포츠 유능감	맹	99	2.426	.896	3.672	.057
	저시력	118	2.661	.897		
	합 계	217	2.554	.902		
체지방	맹	99	3.262	1.247	.199	.656
	저시력	118	3.334	1.129		
	합 계	217	3.301	1.182		
외모	맹	99	2.840	1.078	.607	.437
	저시력	118	2.730	.998		
	합 계	217	2.781	1.034		
건강	맹	99	3.482	.990	.022	.882
	저시력	118	3.502	.963		
	합 계	217	3.493	.973		
신체 활동	맹	99	2.262	1.081	1.467	.227
	저시력	118	2.436	1.028		
	합 계	217	2.357	1.054		
자기 존중감	맹	99	3.628	1.017	.131	.718
	저시력	118	3.675	.900		
	합 계	217	3.654	.953		
유연성	맹	99	2.828	.964	.005	.943
	저시력	118	2.836	.794		
	합 계	217	2.832	.874		
지구력	맹	99	2.123	.877	1.284	.258
	저시력	118	2.264	.943		
	합 계	217	2.200	.914		
근력	맹	99	2.729	1.081	.072	.788
	저시력	118	2.764	.833		
	합 계	217	2.748	.952		
신체 전반	맹	99	2.654	.987	.029	.865
	저시력	118	2.675	.895		
	합 계	217	2.665	.936		

표 III.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장애 정도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전체 평균을 보면, 자기 존중감 요인(3.654)이 가장 높고 지구력 요인(2.2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맹학생(3.628)과 저시력학생(3.675) 모두 자기 존중감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맹학생(2.123)과 저시력학생(2.264) 모두 지구력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 중 외모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저시력학생



이 맹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10개 하위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에는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분석

시각장애학생의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즉 선천성 시각장애학생과 후천성 시각장애학생 간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 비교

하위 요인	시각장애 발생 시기	N	M	SD	F	P
스포츠 유능감	선천성	124	2.387	.885	10.342	.002*
	후천성	93	2.776	.881		
	합 계	217	2.554	.902		
체지방	선천성	124	3.340	1.220	.312	.577
	후천성	93	3.250	1.134		
	합 계	217	3.301	1.182		
외모	선천성	124	2.671	1.065	3.287	.071
	후천성	93	2.927	.979		
	합 계	217	2.781	1.034		
건강	선천성	124	3.481	1.025	.038	.845
	후천성	93	3.508	.904		
	합 계	217	3.493	.973		
신체 활동	선천성	124	2.262	1.090	2.368	.125
	후천성	93	2.483	.994		
	합 계	217	2.357	1.054		
자기 존중감	선천성	124	3.627	1.022	.237	.627
	후천성	93	3.690	.856		
	합 계	217	3.654	.953		
유연성	선천성	124	2.701	.961	6.700	.010*
	후천성	93	3.008	.711		
	합 계	217	2.832	.874		
지구력	선천성	124	2.121	.919	2.200	.140
	후천성	93	2.306	.884		
	합 계	217	2.200	.914		
근력	선천성	124	2.659	1.023	2.576	.110
	후천성	93	2.868	.840		
	합 계	217	2.748	.952		

<표 III.3>에서 계속

하위 요인	시각장애 발생 시기	N	M	SD	F	P
신체 전반	선천성	124	2.604	.961	1.232	.268
	후천성	93	2.747	.901		
	합 계	217	2.665	.936		

\* P<.05

위 표 III.3에서와 같이,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전체 평균을 보면, 자기 존중감 요인(3.654)이 가장 높고, 지구력 요인(2.2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선천성과 후천성 모두 자기 존중감 요인(3.627, 3.690)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구력 요인(2.121, 2.306)이 양 집단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각장애 발생시기별 하위 요인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체지방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에서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스포츠 유능감과 유연성 요인은 후천성이 선천성보다 높게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외 하위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보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과 유연성 요인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외 8개 하위 요인에는 선천과 후천성 시각장애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거주 형태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분석

시각장애학생의 거주 형태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즉 기숙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학생과 자택에 거주하는 시각장애학생 간의 신체적 자기개념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거주 형태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거주 형태	N	M	SD	F	P
스포츠 유능감	기숙사	135	2.574	.894	.174	.677
	자택	82	2.521	.920		
	합 계	217	2.554	.902		
체지방	기숙사	135	3.361	1.145	.897	.345
	자택	82	3.204	1.241		
	합 계	217	3.301	1.182		

<표 III.4>에서 계속

하위 요인	거주 형태	N	M	SD	F	P
외모	기숙사	135	2.764	1.033	.088	.767
	자택	82	2.807	1.043		
	합계	217	2.781	1.034		
건강	기숙사	135	3.477	1.004	.088	.767
	자택	82	3.518	.925		
	합계	217	3.493	.973		
신체 활동	기숙사	135	2.368	1.077	.041	.839
	자택	82	2.338	1.020		
	합계	217	2.357	1.054		
자기 존중감	기숙사	135	3.677	.941	.214	.644
	자택	82	3.615	.978		
	합계	217	3.654	.953		
유연성	기숙사	135	2.794	.865	.692	.406
	자택	82	2.896	.890		
	합계	217	2.832	.874		
지구력	기숙사	135	2.181	.881	.153	.696
	자택	82	2.231	.970		
	합계	217	2.200	.914		
근력	기숙사	135	2.820	.949	2.023	.156
	자택	82	2.631	.952		
	합계	217	2.748	.952		
신체 전반	기숙사	135	2.711	.953	.832	.363
	자택	82	2.591	.908		
	합계	217	2.665	.936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 중에서 전체 평균을 보면, 자기 존중감 요인(3.6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구력 요인(2.2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의 거주 형태별로 기숙사 거주 학생(3.677)과 자택 거주 학생(3.615) 모두가 자기 존중감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숙사 거주 학생(2.181)과 자택 거주 학생(2.231) 함께 지구력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로 보면, 외모, 건강, 유연성, 지구력 요인에서 기숙사 거주 학생보다 자택 거주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6개 요인은 기숙사 거주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10개 하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학생과 자택에서 통학하는 시각장애학생 간에는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 분석

시각장애학생의 운동 유무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한 학생을 운동 학생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을 비운동 학생으로 분류하여 이들 집단 간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운동 유무	N	M	SD	F	P
스포츠 유능감	운동 학생	92	2.989	.811	44.590	.000***
	비운동 학생	125	2.234	.832		
	합 계	217	2.554	.902		
체지방	운동 학생	92	3.491	1.107	4.183	.042 <sup>†</sup>
	비운동 학생	125	3.162	1.220		
	합 계	217	3.301	1.182		
외모	운동 학생	92	3.116	1.065	18.142	.000***
	비운동 학생	125	2.534	.942		
	합 계	217	2.781	1.034		
건강	운동 학생	92	3.567	.974	.944	.332
	비운동 학생	125	3.438	.973		
	합 계	217	3.493	.973		
신체 활동	운동 학생	92	3.212	.916	203.589	.000***
	비운동 학생	125	1.728	.614		
	합 계	217	2.357	1.054		
자기 존중감	운동 학생	92	3.635	.943	.060	.807
	비운동 학생	125	3.668	.964		
	합 계	217	3.654	.953		
유연성	운동 학생	92	2.972	.791	4.147	.043 <sup>†</sup>
	비운동 학생	125	2.730	.920		
	합 계	217	2.832	.874		
지구력	운동 학생	92	2.635	.901	43.326	.000***
	비운동 학생	125	1.880	.784		
	합 계	217	2.200	.914		
근력	운동 학생	92	3.062	.954	18.731	.000***
	비운동 학생	125	2.518	.886		
	합 계	217	2.748	.952		
신체 전반	운동 학생	92	2.964	.953	17.501	.000***
	비운동 학생	125	2.446	.863		
	합 계	217	2.665	.936		

\* P<.05 \*\*\* P<.001

위 표 Ⅲ.5에서와 같이, 시각장애학생의 운동 유무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전체 평균을 보면, 자기 존중감 요인(3.6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구력 요인(2.2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 유무별로는 운동 학생(3.635)이나 비운동 학생(3.668) 모두 자기 존중감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운동 학생은 지구력 요인(2.635), 비운동 학생은 신체 활동 요인(1.72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분석해 보면, 운동 학생이 비운동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체지방, 유연성 요인은 운동하는 학생이 운동하지 않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스포츠 유능감, 외모, 신체 활동,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요인은 운동하는 학생이 운동하지 않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높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외 건강, 자기 존중감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보면, 운동하는 학생이 운동하지 않는 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위 요인에서는 운동하는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보다 다소 높은 차이는 있지만, 건강, 자기 존중감 요인에서는 운동하지 않는 학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시각장애학생의 전체 및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과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 1) 전체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체 시각장애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10개 하위 요인 간의 전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Ⅲ.6과 같다.

표 Ⅲ.6에서와 같이, 시각장애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전체 하위 요인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가장 높은 요인은 스포츠 유능감 요인으로 9개 모든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요인은 건강 요인으로 4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 상관계수는 스포츠 유능감 요인에서 신체 활동 요인(.7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구력 요인(.566), 근력 요인(.478), 유연성 요인(.422), 신체 전반 요인(.404), 외모 요인(.294), 자기 존중감 요인(.243), 건강 요인(.183), 체지방 요인(.150)이다. 그리고 체지방 요인에서는 신체 전반 요인(.235), 자기 존중감 요인(.202), 지구력 요인(.199), 건강 요인(.189), 신체 활동 요인(.152)으로 나타났다.

외모 요인은 신체 전반 요인(.508), 근력 요인(.462), 신체 활동 요인(.327), 유연성 요인(.234), 지구력 요인(.185)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요인은 자기 존중감 요인(.214), 유연

성 요인(.140)으로 나타났다. 신체 활동 요인은 지구력 요인(.448), 근력 요인(.356), 신체 전반 요인(.321), 유연성 요인(.229)으로 나타났다.

자기 존중감 요인은 신체 전반 요인(.340), 근력 요인(.222), 유연성 요인(.177)으로 나타났다으며, 유연성 요인은 지구력 요인(.396), 근력 요인(.354), 신체 전반 요인(.266)으로 나타났다.

지구력 요인은 근력 요인(.443), 신체 전반 요인(.432)으로 나타났으며, 근력 요인은 신체 전반 요인(.566)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 간 전체 상관계수

하위 요인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자기 존중감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스포츠 유능감	1.000	.150*	.294**	.183**	.767**	.243**	.422**	.566**	.478**	.404**
체지방		1.000	.103	.189**	.152*	.202**	.108	.199**	-.018	.235**
외모			1.000	.114	.327**	.126	.234**	.185**	.462**	.508**
건강				1.000	.087	.214**	.140*	.075	.041	.074
신체 활동					1.000	.097	.229**	.448**	.356**	.321*
자기 존중감						1.000	.177**	.075	.222**	.340*
유연성							1.000	.396**	.354**	.266*
지구력								1.000	.443*	.432*
근력									1.000	.566*
신체 전반										1.000

\*P<.05 \*\*P<.01

2)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시각장애학생의 운동 유무별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10개 하위 요인 간의 전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아래 표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상단부분은 운동하지 않는 학생 즉, 비운동 집단이며, 왼쪽 하단부분은 운동하는 학생 즉, 운동 집단의 상관계수이다.

<표 III.7>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 간 전체 상관관계수

하위 요인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자기 존중감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스포츠 유능감	-	.074	.145	.233**	.268**	.389**	.413**	.507**	.463**	.402**
체지방	.149	-	.103	.123	.067*	.257**	.115	.212*	-.008	.346**
외모	.279**	.022	-	.161	.101	.141	.162	.086	.336**	.456**
건강	.084	.272**	.026	-	.202*	.234**	.262**	.074	.121	.118
신체 활동	.190	.096	.270**	-.072	-	.149	.054	.335**	.110*	.193*
자기 존중감	.111	.129	.132	.190	.159	-	.250**	.206*	.224*	.471**
유연성	.395**	.049	.272**	-.072	.344**	.070	-	.360**	.254**	.236**
지구력	.445**	.090	.074	.027	.185	-.052	.406**	-	.381**	.434**
근력	.350**	-.133	.506**	-.101	.339**	.253*	.451**	.368**	-	.466**
신체 전반	.244*	.020	.480**	-.014	.189	.218*	.249*	.291**	.602**	-

\*P<.05 \*\*P<.01

위 표 III.7에서와 같이, 시각장애학생을 운동 집단과 비운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10개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수를 구한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운동 집단에서 가장 높은 요인은 근력 요인으로 7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요인은 건강과 체지방 요인으로 각각 1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비운동 집단에서 가장 높은 요인은 신체 전반 요인으로 8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요인은 외모 요인으로 1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 가장 높은 상관관계수는 운동 집단에서 신체 전반-근력 요인(.602)이며, 비운동 집단에서는 스포츠 유능감-지구력 요인(.507)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스포츠 유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운동 집단에서는 지구력 요인(.445), 유연성 요인(.395), 근력 요인(.350), 외모 요인(.279), 신체 전반 요인(.244)으로 나타났으며, 비운동 집단에서는 지구력 요인(.507), 근력 요인(.463), 유연성 요인(.413), 신체 전반 요인(.402), 자기 존중감 요인(.389), 신체 활동 요인(.268), 건강 요인(.233)으로 나타났다.

체지방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요인은 운동 집단에서는 건강 요인(.272)으로 나타났으며, 비운동 집단에서는 신체 전반 요인(.346), 자기 존중감 요인(.257), 지구력 요인(.212), 신체 활동 요인(.067)으로 나타났다.

외모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요인으로 운동 집단에서는 근력 요인(.506), 신

체 전반 요인(.480), 유연성 요인(.272), 신체 활동 요인(.270)으로 나타났으며, 비운동 집단에서는 신체 전반 요인(.456), 근력 요인(.336)으로 나타났다.

건강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요인은 운동 집단에서는 없었으며, 비운동 집단에서는 유연성 요인(.262), 자기 존중감 요인(.234), 신체 활동 요인(.202)으로 나타났다.

신체 활동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요인으로 운동 집단에서는 유연성 요인(.344), 근력 요인(.339)으로 나타났으며, 비운동 집단에서는 지구력 요인(.335), 신체 전반 요인(.193), 근력 요인(.110)으로 나타났다.

자기 존중감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요인은 운동 집단에서는 근력 요인(.253), 신체 전반 요인(.218)으로 나타났으며, 비운동 집단에서는 신체 전반 요인(.471), 유연성 요인(.250), 근력 요인(.224), 지구력 요인(.206)으로 나타났다.

유연성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요인은 운동 집단과 비운동 집단 모두 지구력 요인(운동 집단 상관계수= .406, 비운동 집단 상관계수= .360), 근력 요인(운동 집단 상관계수= .451, 비운동 집단 상관계수= .254), 신체 전반 요인(운동 집단 상관계수= .249, 비운동 집단 상관계수= .236)으로 나타났다.

지구력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요인은 운동 집단과 비운동 집단 모두 근력 요인(운동 집단 상관계수= .368, 비운동 집단 상관계수= .381), 신체 전반 요인(운동 집단 상관계수= .291, 비운동 집단 상관계수= .434)으로 나타났다.

근력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요인은 운동 집단과 비운동 집단 모두 신체 전반 요인(운동 집단 상관계수= .602, 비운동 집단 상관계수= .466)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시각장애 고등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해 배경 변인(성, 시각장애 정도, 시각장애 발생 시기, 거주 형태)별 차이를 밝히고, 또한 시각장애학생의 운동 유무별 신체적 자기개념과 하위 요인(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자기 존중감,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은 자기 존중감 요인이 가장 높고 지구력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은 건강 요인에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자기 존중감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남·여학생 모두 지구력 요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모든 하위 요인에서 여학생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은 결과는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병준(2001), 이원철



(2000), 정혜영(2003) 등의 연구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교만(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격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우세하고 다양한 신체적 체험과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위 요인 중 특히, 자기 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요인에서 더 높고, 자기 존중감,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는 여학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병준(2001), 정혜영(2003) 등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포츠 유능감, 건강, 지구력 요인에서 남녀 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남학생들은 비교적 여학생들에 비해 신체 활동을 좋아하고 자주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학생들은 운동을 좋아해도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남학생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는 남녀가 스스로 인식 정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시각장애 정도별로는 자기 존중감 요인이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모두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구력 요인이 맹학생과 저시력학생이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로는 외모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약간 높으나 모두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에는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저시력학생이 맹학생보다 잔존시력이 있어 신체적 자기개념이 맹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맹학생이든 저시력학생이든 시각장애로 인하여 체육 활동이나 운동의 참여 기회가 거의 환경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맹학교라는 제한적이고 분리된 교육환경 속에서 맹학생과 저시력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점자와 녹음 교재 등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적인 조치가 맹학생 위주로 되어 있어 저시력학생들에게는 잔존시력 활용을 위해 다양하고 특별히 배려된 교육적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이유라고 생각된다.

셋째,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성과 후천성 모두 자기 존중감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구력 요인이 양 집단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과 유연성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시각손상 이전의 다양한 신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비교적 운동과 체육 활동에 대한 경험과 참여하는 기회가 다소 많았기 때문에 스포츠 유능감과 유연성 즉, 여러 스포츠를 잘 하는 것이나 신체를 유연하게 움직이는 체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하위 요인에는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다소 높으나,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구교만, 2002)에서는 후천성이 선천성보다 신체적 자기개념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뇌성마비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경환, 2004)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체력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신체와 관련된 부분인 외모, 신체 전반, 건강 요인 등의 예서는 선천성이 더 높았고, 체지방은 후천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시각장애학생의 거주 형태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자기 존중감 요인으로 기숙사·자택 거주 학생 모두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지구력 요인이 기숙사·자택 거주 학생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로 보면, 외모, 건강, 유연성, 지구력 요인에서 기숙사 거주 학생보다 자택 거주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신체 활동, 자기 존중감,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는 기숙사 거주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10개 하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학생과 자택에서 통학하는 시각장애학생 간에는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동 유무별로는 운동을 하는 학생이나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 모두 자기 존중감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운동을 하는 학생은 지구력 요인,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신체 활동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분석해 보면, 운동을 하는 학생이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과 자기 존중감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운동하는 학생이 운동하지 않는 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 더 높으나, 건강, 자기 존중감 요인에서는 운동하지 않는 학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뇌성마비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경환, 2004)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운동의 유무에 따라 신체적 자기개념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신체 활동의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구교만, 2002; 김석일, 2004; 양대승, 1992; 정해영, 2003; Fox, 2002; Sonstroem, 1997). 따라서 시각장애학생들이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나 스포츠 참여는 개인의 객관적인 신체 능력을 높여 줌과 동시에 신체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 결과 주관적 신체능력감을 상승시켜 자기개념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신체적 자기개념의 전체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높은 요인은 스포츠 유능감 요인으로 9개 모든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요인은 건강 요인으로 4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포츠 유능감이 모든 요인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은 한국판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김병준, 2001)에서 중학부 남학생들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일곱째, 운동 유무별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요인은 운동 집단에서 근력 요인으로 7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요인은 건강과 체지방 요인으로 각각 1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비운동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요인은 신체 전반 요인으로 8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요인은 외모 요인으로 1개 하위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시각장애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보다 더욱 긍정적인 신체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는 운동하는 시각장애학생이 스포츠 유능감, 근력 요인 등의 스포츠 기능과 체력에 관련된 자기개념에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건강, 체지방, 외모 요인 등의 신체와 관련된 자기개념에서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가 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김석일, 2004)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운동과 신체적 자기개념의 관계는 호혜적인 인과관계로서 신체적 자기개념이 운동 지속에 영향을 주고, 운동 지속은 신체적 자기개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로 볼 때, 운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시각장애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보다 신체적인 체력 기능이 우월하여 자기개념에 대한 지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의 자기 신체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 형성을 위한 지도·교육의 자료 개발을 위해 전국맹학교 고등부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기개념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요인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이 더 높고, 시각장애 발생시기별로는 후천성이 선천성보다 스포츠 유능감과 유연성 요인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이 더 높다. 그리고 운동 유무별로는 운동하는 학생이 운동하지 않는 학생보다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요인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이 더 높다

둘째, 신체적 자기개념의 전체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스포츠 유능감 요인이 가장 높고, 건강 요인이 가장 낮으며, 운동 유무별 상관관계는 운동하는 집단에서 근력 요인이 가장 높고, 건강과 체지방 요인이 가장 낮으며, 운동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신체 전

반 요인이 가장 높고, 외모 요인이 가장 낮다.

## 2. 제언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각장애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개선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실상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척도개발의 탐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각장애학생용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의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신체적 자기개념이 낮게 지각되는 시각장애학생에게 신체적 자기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동연(1991). **시각손상아의 지도**. 대구: 동아문화사.
- 강성구, 박주영(2003).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활동이 체력요인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3), 55-64.
- 구교만(2002). 지체장애인의 운동참가와 신체적 자기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국립특수교육원(1999).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이운주, 이계윤, 정명수, 원유병(2002).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긍심,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7, 319-327.
- 김병준(2001). 한국판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2), 69-90.
- 김병준(2001). 신체적 자기개념의 논리, 측정, 활용.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스포츠심리학회, 60-82.
- 김석일(2004).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용국(1997). 지체부자유 학생의 운동참가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경환(2004). 뇌성마비 학생의 운동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대승(1992).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양명환(1998). 신체활동과 심리적 행복감: 인지적-정서적 상태 측정지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2), 113-124.
- 유진(1993). **운동과 건강**.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심포지움 발표논문(pp. 1-35). 서울:고려대학교.
- 이원철(2000).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프로파일.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운주, 이계윤, 정명수, 원유병(2002).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긍심,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7, 319-327.
- 전혜선(1998). 운동과 자기개념/자긍심. 한국스포츠심리학회편, **스포츠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태근.

- 정혜영(2003).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수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정운(2000). 지체장애학생의 신체적 자기지각 구성요인 분석. 석사학위 논문, 인천 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길동, 허정식(2003). 복합 운동 참가가 생리적 요인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3), 111-126.
- Dishman, R., & Guttman, L. R. (1989). Psychobiologic influence on exercise adherence.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 295-310.
- Fox, K. R. (1990). *The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Fox, K. R. (2002). Self-Perceptions and sport behavior. In T. Horn (ED), *Advances in sport psychology*(pp. 83-99).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Fox, K. R., & Corbin, C. B. (1989). The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 408-430.
- Lowenfeld, B. (1975). *The Changing Status of the Blind from Separation to Integration*. Springfield, Ill.: Thomas.
- Marsh, H. W. Richards, G., Johnson, S., Roche, L., & Tremayne, P. (1994).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a multitrait- multimethod analysis of relations to existing instrument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6*, 270-305.
- Richards, G. E. (1987). Outdoor education in Australia in relation to the Norman Conquest, a Greek olive grove and the external perspective of a horses mouth. Paper presented at the 5th National Outdoor Education Conference. Perth, Western Australia.
- Sonstroem, R. J. (1997). The physical self-system: A mediator of exercise and self-esteem. In K. R. Fox (Ed), *The Physical self*(pp. 3-26).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The Analysis on Physical Self-Conception Propensity of Visually Impaired Students

Lee, Hae gyun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hysical self-conception intended for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 senior high school all over the country for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 and education to form the desirable self-concep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The object of this is to analyze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ariations of students-background and make clear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hysical activities and subfactor of physical self-conceptions.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in part of physical self-conception, boy students are superior to girl students according to the kind of gender and in the elements of sport competency, body fat, appearance, physical activity, flexibility, endurance. According to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the acquired visually impaired students are superior to the congenital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 the field of sport competency, flexibility.

Second, according as whether students do physical activity or not, students who do physical activity are superior to those who do not physical activity in the whole element of body such as sport-competency, body fat, appearance, physical activity, flexibility, endurance, muscular power.

And in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xistence and the non-existence of physical activity, the elements of muscular power is highest and the element of health and body fat are lowest among the groups who do not exercise, the whole elements of body are highest and the elements of appearance are lowest.

**Key Words** : Visually Impaired Students, Physical Self-Conception